

## 어디까지 쌓아 올라갈 수 있을까?

사회복지학과 조항진

### 내가 느낀 것, 그리고 상상하게 된 것.

'닥터후'라는 영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외계인과 싸워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야기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보다도 주인공이 휘두르는 기계가 너무 신기했다. 지팡이 같은 기계를 휘두르면 물건도 고치고 암호도 풀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곤 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조금 머리가 자란 후에는 그냥 허구에 불과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컴퓨터 과학이 여는 세계'를 듣고 나니, 그 기계가 터무니없다는 생각은 사라졌다. 오히려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Hierarchy. 차곡차곡 쌓기다. Abstraction Hierarchy라는 지혜 중 일부다. 교수님께서 '속내용을 감추며 차곡차곡 쌓기'라고 표현하였다. 하지만 '차곡차곡 쌓기'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 쌓기만큼 속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는 수고가 덜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쌓는 것이야 말로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했다.

컴퓨터는 그 지혜가 아주 잘 활용된 사례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모두 이 지혜를 활용했다. 부품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여러 계층의 기술이 쌓였고, 최종 결과물인 컴퓨터가 만들어진 것이다. 소프트웨어 역시 쌓는 과정이다. 그동안의 축적된 많은 생각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최선의 알고리즘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어를 쓴다. 이 과정에서도 언어를 한 땀 한 땀 쌓아간다. 이 지혜에 따르면, 닥터후에 나오는 기계는 아마 미래에 있는 최상의 컴퓨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일상 역시 쌓는 것의 연속이다.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지혜가 일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었다. 목표 쌓기. 하위 목표 혹은 단기 목표를 정하고, 상위 목표 혹은 장기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여행 하고자 하는 곳, 여행 하는 방법 등 여행을 가기 위해 다양한 생각들이 쌓인 것이다.

이 지혜를 전공에도 적용해보았다. 이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 전공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정체성. 사회복지학과의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다. 경제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 학문들의 정체성은 명확했다. 철학 등 인문학의 정체성도 명확했다. 컴퓨터 역시 정체성이 명확하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은 그렇지 않다고 느꼈다. 전공을 배울 때, 심리학 이론도 배우고, 경제학 이론도 배우고, 정치학 이론도 배웠다. 하지만 사회복지학에 대해서 배웠다는 느낌이 없었다. 정체성이 혼란스러웠다. 마치 모든 학문을 섞어 놓은 '짬뽕' 같았다. 학문의 깊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니었다. 위 지혜를 적용해보니, 사회복지야 말로 차곡차곡 쌓여진 학문이었다. 다양한 분야들

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노인, 장애인, 여성, 이주노동자 등 많은 분야들이 서로 쌓여 있는 것이다. 다양한 학문들이 쌓였다. 사회복지학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인문학 등 수많은 학문의 집합이었다.

정리가 되었다. 나름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지학은 깊이가 얇은 학문이 아니었다. 다른 학문이 그저 섞여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쌓인 것이었다. 수많은 학문의 지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탄생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전공에 임하는 마음이 달라졌다.

차곡차곡 쌓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전공 시간에 과제를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이 들었다. 현실성은 있는건지, 이미 있었던 방법들을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회의감이 강하게 들었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모두 쌓는 과정이었다. 나의 지식을 쌓고, 나의 경험을 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는 과정이었다. 새로운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전공 공부도 모두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다.

기반이 중요하다. 쌓는 것 못지않게 '차곡차곡'이 중요하다. 사상누각이라는 사자성어처럼,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반대로, 기초가 잘 다져져 있다면 그 위에 어떤 것을 쌓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

'지능정보시대의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있다.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이 사회복지학에 쌓인 것이다. 내 역량이 이 분야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쌓아갈 것이다. 차곡차곡 쌓아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닥터후의 주인공이 지팡이 하나로 무엇이든 해내는 모습처럼, 언젠가 하나의 생각이 모든 복지를 관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날을 상상하며 쌓아나가 보고 싶다.